

세계성찬주일 World Communion Sunday

전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하나 됨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화를 묵상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한다.

환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
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오늘 전 세
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륙과 문화를 넘어 한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
은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성을
기뻐하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화해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
찬, 그리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시는 하나 됨
과 정의와 희망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환
영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회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으로 나아옵니
다.

인도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회중: 우리는 감사함으로 생명의 떡을 받습니다.

인도자: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회중: 이제 우리는 사랑과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
로 살아가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회중: 우리는 모든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소망
을 전하겠습니다.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Prelude

Instrumental music or soloist offering music that invites
worshippers to reflect on the unity of Christ's
church and God's peace for the world.

Welcome

Grace and peace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day we celebrate World Communion Sunday!
Across continents and cultures, millions of Christians
gather around the Lord's Table, giving thanks for the grace
that unites us in Christ. Though our languages, customs,
and histories differ, we are members of one family because
Christ has made us one. Today, we rejoice in the diversity
of God's people, pray for the peace of the world, and
remember our calling to become ambassadors of recon-
ciliation. Through our worship, our sharing at the Lord's
Table, and our generosity, may we bear witness to the
unity, justice, and hope of God's kingdom. All are
welcome. Let us worship God!

Call to Worship

Leader: God has gathered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every generation.

People: We come as one family, united by God's grace.

Leader: Christ invites us to one table.

People: We receive the bread of life with grateful hearts.

Leader: The Holy Spirit makes us one body.

People: We will live as Christ's people in love and peace.

Leader: God sends us into the world.

People: We will share Christ's hope with every neighbor
and every nation.

Opening Hymn

"One Bread, One Body"

The United Methodist Hymnal 620

기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세대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 분열하고, 교만 때문에 이웃과 멀어지고, 편견으로 다른 이들의 은사를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넉넉히 환영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0:16~17

설교

“온 세상과 나누는 하나의 빵”

응답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봉헌 초대

우리의 헌금은 교회를 세우고,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드립니다.

봉헌

그리스도의 환대와 교회의 하나 됨, 그리고 세상을 향한 평화를 묵상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한다.

Opening Prayer

God of every nation and every people, we praise you for gathering us into one family through Jesus Christ. At your table, there is room for every language, every culture, and every generation. Forgive us when fear divides us, pride separates us, or prejudice blinds us to the gifts of others. Renew us by your Spirit so that we may become a church that welcomes generously, serves joyfully, and lives faithfully as one body in Christ. Prepare our hearts to receive your grace and to become instruments of your peace in the worl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Scripture

1 Corinthians 10:16-17

Sermon

“One Bread Shared with the Whole World”

Hymn of Response

“Let Us Break Bread Together”

United Methodist Hymnal 618

Offering Invitation

Through our gifts, we participate in ministries that strengthen churches, educate leaders, and share Christ’s hope around the world. Every offering is an act of thanksgiving for the grace we have received and a commitment to God’s miss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Let us give joyfully, trusting that God will use these gifts to nourish faith and transform lives across the globe. May our generosity become another expression of the unity we celebrate at the Lord’s Table.

Music During Offering

Instrumental music or soloist offering music that reflects Christ’s welcome, unity, and peace.

봉헌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소서. 이 헌금을 축복하셔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며, 정의와 긍휼과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 가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나누며,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넉넉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으로의 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은 어느 한 나라나 문화, 특정 교단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이곳에서 낯선 이는 이웃이 되고, 원수는 친구가 되며, 굶주린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식탁으로 초대받습니다.

대감사

인도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인도자: 마음을 올려 드리십시오.

회중: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립니다.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중: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태초에 주님께서 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갈라놓고 교만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벽을 세웠을 때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 자비의 손길과 희망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그네를 환영하시고, 굶주린 이를 먹이

Prayer of Dedication

Generous God, receive these gifts with our gratitude and hope. Bless this offering so that future leaders may be equipped to proclaim your gospel, serve your people, and build communities of justice, compassion, and peace. As you have freely given to us, teach us to give generously for the sake of your church and your world.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Invitation to the Lord's Table

Christ our Lord welcomes all who seek God's grace, who long for peace, and who desire to live in love with God and neighbor. This table does not belong to any nation, denomination, or culture. It belongs to Christ, whose arms are open to the whole world. Here strangers become neighbors, enemies become friends, and the hungry are filled with grace.

Come, not because you are worthy, but because Christ is gracious. Come, for everything is ready.

The Great Thanksgiving

Leader: The Lord be with you.

People: And also with you.

Leader: Lift up your hearts.

People: We lift them to the Lord.

Leader: Let us give thanks to the Lord our God.

People: It is right to give our thanks and praise.

Holy and gracious God, from the beginning you created one human family and entrusted the earth to our care. Even when fear divided us and pride built walls between peoples, your love never failed. Through prophets and peacemakers, through acts of mercy and words of hope, you continued to call humanity into covenant with you and with one another.

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언어와 전통 속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리고 하늘의 모든 성도와 더불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온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빵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산 제물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이 빵과 잔 위에 임하셔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백성으로 세워 주소서. 이 식탁에서 새 힘을 얻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환영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안에서 이제와 영원토록 돌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Above all, you sent Jesus Christ, who welcomed the stranger, fed the hungry, healed the broken, forgave sinners, and proclaimed good news to the poor. In him we see your boundless love, a love that reaches beyond every border and embraces the whole world.

And so, with Christians in every land, with all who worship today in many languages and traditions, and with the whole company of heaven, we join our voices in joyful praise:

Holy, holy, holy Lord, God of power and love. Heaven and earth are full of your glory.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Glory to God forever.

On the night before he gave himself for us, Jesus gathered with his disciples for a meal of love. Taking bread, he gave thanks, broke it, and shared it with them,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which is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fter the meal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shared it with them, saying, “Drink from this,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poured out for you and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Remembering Christ’s life, death, resurrection, and promise to come again, we offer ourselves as living witnesses of his grace. We pray that your Holy Spirit may come upon us and upon these gifts of bread and cup. Make them for us signs of Christ’s living presence, and make us one people, united in faith, hope, and love. Nourished at this table, send us into the world to seek justice, love mercy, welcome the stranger, care for creation, and proclaim the good news until every nation rejoices in your kingdom.

All honor and glory are yours, eternal God, through Jesus Christ,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Amen.

The Lord’s Prayer

분병례

빵은 하나이므로 우리가 많으나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누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빵과 잔을 나눔

회중은 앞으로 나와 빵과 잔을 받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동안 감사와 하나 됨, 그리스도의 평화를 묵상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한다.

성찬 후 기도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먹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겸손과 기쁨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이곳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식탁의 연장이 되어, 나그네를 환영하고, 굶주린 이를 먹이며, 평화를 이루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파송과 축도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빵과 한 잔을 함께 나누었으니, 한 몸 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의 경계를 사랑으로 넘어가고, 분열의 벽을 화해로 허물며, 불의의 장벽을 정의로 이겨 나가십시오. 나그네를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며,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민족의 창조주 하나님과 온 세상의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제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Breaking the Bread

Because there is one loaf, though we are many, we are one body, for we all share in the one bread. The bread we break is a sharing in the life of Christ. The cup over which we give thanks is a sharing in the grace of Christ.

Giving the Bread and Cup

The congregation is invited to receive the bread and cup.

During Communion, music reflecting thanksgiving, unity, and the peace of Christ may be offered.

Prayer after Communion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meeting us at your table and feeding us with your love. Strengthen us by your Spirit to live as one body in Christ, celebrating our diversity, bearing one another's burdens, and serving the world with humility and joy. As we leave this place, may our lives become an extension of this table, welcoming the stranger, feeding the hungry, seeking peace, and sharing the hope of Christ wherever you send us.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Amen.

Closing Hymn

“Sent Forth by God’s Blessing”

United Methodist Hymnal 664

Benediction

Go now in the peace of Christ. Having shared one bread and one cup, go to live as one body. Cross the borders of fear with love, the walls of division with reconciliation, and the barriers of injustice with hope. Welcome the stranger, honor the dignity of every person, and let your life proclaim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May God, Creator of every nation, Christ, the Bread of Life for the whole world, and the Holy Spirit, who makes us one, bless you and keep you today and always. Amen.

*세계성찬주일예배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회중을 위한 한영예배 자료로 정화영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예배는 한국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예배드릴 때 사용할 수 있고, 각 회중이 따로 예배드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wa Young Chong wrote this order of World Communion Sunday for a bilingual Korean-English congregation. This service may be used when the Korean-speaking and English-speaking members worship together, and it may also be used when each worships separately.

Rev. Dr. Hwa-Young Chong holds a BA in Christi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completed her M.Div. and Ph.D. in Theological and Historical Studies from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in Evanston, Illinois. She is an ordained elder in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he serves as the district superintendent for the Prairie North District of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